

  제주특별자치도 <small>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</small>		2024. 8. 27.(화)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농업기술원	보도자료 PRESS RELEASE	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	양창희 ☎760-7901
		업무담당자	송상철 ☎760-7951
		홍보담당자	김미리 ☎760-7514
동영상 :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	사진(웹하드) : 있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	
		후속자료 : 없음	

축구장 크기 마늘밭 기계로 하루만에 파종

- 마늘 파종 기계화로 인건비 절감...실질적 농가소득 증대 기대 -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(소장 양창희)는 마늘 농업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6~27일 마늘 주산지 5개 농협 및 작목반(대정농협, 고산농협, 안덕마늘기계화작목반, 신도2리마늘작목반, 신도3리푸른작목반), 마늘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마늘 파종기 운용 교육과 현장 연시를 개최했다.
- 마늘 농업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사업은 마늘 재배 전 과정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해소와 인건비 절감을 목표로 마늘 농작업기를 농협 및 작목반에 장기임대하는 사업이다.
-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올해 11억 원을 투입해 마늘 파종기, 수확기 등 농작업기 10종 96대를 구입했으며 지난 6월 25일부터 장기임대를 시작했다.
- 이번 운용 교육은 트랙터나 승용관리기에 부착해 사용하는 10조식 파종기계를 활용해 토양 특성, 씨마늘의 크기 등에 따라 심는 깊이와 작업 속도 등 기계 조작의 숙련도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.
- 마늘 파종기는 운용하는 사람의 조작 능력에 따라 결주율, 발아율 등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이다.

- 이번 교육에 활용된 10조식 파종기를 사용하면 축구장 크기인 8,000㎡ 면적을 하루만에 작업할 수 있어 기존 인력작업 방식에 비해 인건비를 87.2%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.
- 마늘 기계파종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농협, 작목반 등에서 운영하는 농작업 대행장비를 이용하거나 농업기술센터 임대 사업소의 파종기를 임차해 활용하면 고가의 기계구입 부담을 줄이고 생산비를 낮출 수 있다.
- 이를 통해 마늘 재배의 가장 큰 어려움인 인력 수급과 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마늘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- 송상철 농업기계화팀장은 “앞으로 파종 이후에 이뤄지는 농작업에도 기계화를 추진할 예정”이라며 “마늘 재배 안정화와 인건비 절감으로 생산비를 줄여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” 라고 말했다.